

이주민의 한국어 의사소통 실태 분석 **—의사소통 어려움의 요인 및 경로 모형과 어려움** **해소에 필요한 학습 기간을 중심으로**

민병곤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국어교육연구소 겸무연구원(제1저자)

구본관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국어교육연구소 겸무연구원

박성석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과정

박종관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과정

김종철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국어교육연구소 겸무연구원(교신저자)

† 이 논문은 아산사회복지재단 창립 39주년 기념 심포지엄(2016.06.23)에서 발표한 내용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 방법
- IV. 연구 결과
- V. 결론

I. 서론

한국 사회는 지속적인 이주민의 유입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2015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 국적동포, 기타 외국인),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혼인귀화자, 기타 사유), 외국인주민 자녀(외국인 부모, 외국인-한국인 부모, 한국인 부모)를 포함하는 전체 외국인주민은 총 1,741,919명으로, 이는 주민등록 인구의 3.4%에 해당한다. 이들 중 외국국적동포와 일부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주민 자녀를 제외한 대부분이 한국어를 제2언어로 습득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주민 대상 한국어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이주민의 한국어 의사소통 실태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인구 통계학적 조사가 체계를 갖추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도 비교적 최근인 만큼, 아직까지는 이주민의 한국어 의사소통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물론 공교육의 대상인 외국인주민 자녀나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그간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김경령 외, 2011; 박시균, 2013; 소강춘 외, 2008; 오소정 외, 2009; 허용 외, 2009). 그러나 외국인주민의 최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주민근로자가 배제된

가운데 이루어진 조사가 이주민 전반의 실태를 보여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주민 중 다수를 이루는 ‘이주민근로자’, ‘결혼이주민’, ‘이주민자녀’의 한국어 의사소통 실태를 체계적이고 비교 가능한 형태로 조사한 후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이주민 집단의 명칭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 이주민근로자: 근로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거주하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행정자치부(2015)의 ‘외국인근로자’
- 결혼이주민: 한국 국적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결혼으로 인해 한국에 입국하여 거주하는 여성 외국인. 행정자치부(2015)의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¹
- 이주민자녀: 부모 중 최소 한 사람이 외국 국적이거나 외국 국적이었던 미성년자. 행정자치부(2015)의 ‘외국인주민 자녀’

본 연구에서 이주민근로자, 결혼이주민, 이주민자녀의 세 부류로 연구대상을 한정된 까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민집단의 인구 비율을 보면, 이주민근로자가 전체 외국인주민의 34.9%를, 결혼이주민이 13.8%를, 이주민자녀가 11.9%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세 집단만을 포괄하더라도 이주민의 60.6%가 포함된다(행정자치부, 2015 참고). 둘째, 이주민근로자, 결혼이주민, 이주민자녀²는 유학생이나 외국국적동포와 달리,

1 행정자치부(2015)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는 147,382명 중 125,073명(84.9%)이 여성이고, 혼인귀화자는 92,316명 중 87,753명(95.1%)이 여성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민을 여성으로 한정하여 표집하였다.

2 이주민자녀에 대한 다양한 분류 방식들(권순희, 2009; 김영란, 2009; 원진숙, 2014; 진은주, 2012; 최영환, 2009)을 종합해 볼 때, 이주민자녀를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와 외국에서 태어나 입국한 경우로 대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둘 중 한국에서 태어난 이들은 한국어가 모어인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어려움이 덜 하지만, 중도 입국한 이들은 한국어를 제2언어로 학습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기초 의사소통에서조차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본적인 한국어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이들이다. 따라서 이들 세 집단은 이주민들을 대표하는 부류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한국어 능력 습득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라는 점에서 한국어 교육에서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라 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을 비롯한 언어 교육에서 주로 목표하는 바는 피교육자의 언어 능력 향상에 있으며, 일반적으로 언어 능력이 향상된다면 해당 언어 사용에서의 어려움도 해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제2언어 능력의 향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제 언어 사용 상황에서 개입하는 다양한 변인들로 인해 반드시 제2언어 사용 환경에서의 어려움이 해소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이주민 집단 구성원들의 경우 실제 한국어 사용 환경 속에서 놓여 있기에 이들의 한국어 의사소통에서의 어려움은 한국어 능력의 부족 외에도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주민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은 물론, 한국어 의사소통에서 느끼는 실질적인 어려움 해소에 목표를 두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한국 사회의 정책적 지원과 한국어 교육 종사자들의 노력을 통해 통제 가능한 측면이 ‘학습’이라는 점에서, 이주민들의 한국어 학습 기간에 따라 이들의 한국어 의사소통 어려움이 얼마나 해소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확인하는 데 관심을 두고자 하였다.

이상의 배경 및 문제의식 속에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어떤 변인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이주민의 한국어 의사소통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이주민의 한국어 의사소통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필요한 학습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

II. 이론적 배경

1. 학습 연령과 제2언어 습득

학습 연령이 언어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생각은 소위 ‘결정적 시기 가설(critical period hypothesis)’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학자들에게서 주목받아 왔다. 이는 Penfield와 Roberts(1959)에서 최초로 제안된 이후 Lenneberg(1967)을 통해 널리 알려진 가설로서, 생물학적 이유로 인해 언어 습득을 위해 중요한 시기가 사춘기 이전에 존재하며 이 시기를 지나면 언어 습득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가설은 처음에는 주로 모어 습득과 관련하여 논의되었으나, 여러 후속 논의들(Johnson & Newport, 1989; Oyama, 1976; Patkowski, 1980)을 거치면서 지금은 제2언어 습득으로까지 확장되어 논의되고 있다.

이처럼 제2언어 습득에서 결정적 시기가 존재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들은 주로 제2언어에 최초로 노출되기 시작한 연령이 제2언어 구사력 혹은 유창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증함으로써 확인된다. 이때 제2언어에 최초로 노출되기 시작한 연령은 주로 ‘학습 연령’(age of learning)(Flege, 1988), ‘입국 연령’(age of arrival)(Johnson & Newport, 1989), ‘시작 연령’(age at onset)(Stevens, 2006)과 같은 명칭의 변인으로 처리되어 왔다.

제2언어 습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결정적 시기가 구체적으로 언제까지인지에 관해서는 적게는 5세(Krashen, 1973)나 6세(Pinker, 1994)부터 많게는 12세(Lenneberg, 1967; Scovel, 1969)나 15세(Johnson & Newport, 1989)까지 의견이 분분할 뿐 합의된 사항이 없다. 그러나 대략 청소년기가 끝나기 전에 학습이 시작된 경우가 성인기에 진입한 후 학습이 시작된 경우보다 제2언어 습득과 학습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정적 시기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려 주는 연구로

는 Oyama(1978)를 들 수 있다. 그는 성인이 아동보다 언어를 완전히 학습하려는 동기가 부족하다는 점, 말하기(즉, 연습과 실수)에 관해 자의식이 강하다는 점, 목표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수용하지 못한다는 점, 언어 습득이 일어나는 데 필요한 개방적 태도 및 정서적 상태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점 등이 결과적으로 제2언어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였다. 정의적 변인들과 언어 능력 검사 결과는 양호한 상관이 있었지만, 입국 연령(age of arrival)의 효과를 함께 고려했을 때에는 정의적 변인들의 효과가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의적 변인들의 효과보다도 언어 학습 및 습득이 시작되는 연령의 효과가 강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2. 목표 언어에의 노출 기간과 제2언어 습득

일반적으로 제2언어 입력의 양은 문자 그대로 제2언어 환경에서 보낸 헛수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Flege, 1988: 71). 따라서 목표 언어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수록 제2언어 습득이 심화될 것이라는 점은 경험적 상식에 가까워 보이지만, 이에 관해 정밀하게 검증한 연구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이는 많은 연구들이 애초에 목표 언어에 노출되는 기간을 변인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피험자의 생물학적 연령과 목표 언어에 노출된 기간을 동시에 고려하기 어려웠던 문제³에서 비롯한 것으로도 보인다.

Johnson과 Newport(1989)에서는 주로 결정적 시기가 언어 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와 함께 미국 거주 기간(length of residence)과 언어 수행 능력 간 상관을 점검하고($r=.16$) 있다. 이들은 상관이 낮은 이유로 거주 기간이 중요한

3 이와 관련하여 Stevens(2006)에서는 이주민의 연령과 이주민이 L2 환경에서 살아온 시간의 길이를 안다면, 그의 이주 연령(즉, 시작 연령)을 알 수 있으므로, 연령, 거주 기간, 시작 연령의 세 변인이 선형 종속 관계에 놓이게 되는 통계상의 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 내리고 있으나, 이는 입국 연령과 비교할 때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것일 뿐, 제2언어 능력에 미치는 효과가 전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언어능력 외에도 언어사용에서 겪는 어려움을 변인으로 고려하고 있으므로 거주 기간을 반드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어 습득과 관련하여서는 오소정 외(2009)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머니 즉,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 거주년수와 이들이 주관적으로 보고한 한국어 능숙도 간에 유의한 상관($r=.331$)을 확인하고, 한국에 오래 거주할수록 한국어 능숙도가 높아짐을 보고하였다. 오소정 외(2009)의 보고는 Johnson과 Newport(1989)의 보고에 비해 거주 기간과 언어 능력의 상관을 높게 보여주고 있어, 거주 기간을 변인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3. 목표 언어의 학습 기간과 제2언어 습득

목표 언어에 노출되는 기간이 주로 목표 언어 사용 환경에서 거주하는 기간과 같은 자연적인 변인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목표 언어에 대한 학습 기간은 주로 전문적인 교육 기관을 통해 의도적으로 목표 언어 습득을 위해 노력한 기간을 가리킨다. 제2언어 습득은 제2언어에 대한 자연적인 노출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겠으나 학습이 개입할 경우 보다 빠른 습득이 가능할 것이므로 노출 기간과 학습 기간을 별개의 변인으로 구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어 ‘교육’의 관점에서는 공식적 학습이 이루어진 기간이 실제 한국어 능력 향상이나 한국어 의사소통에서 느끼는 어려움 해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습득에 필요한 학습 기간에 관한 자료는 미국 국방외국어전문대학교(DLI)의 연구 결과를 참조해 볼 수 있다(김인석, 2001: 281). DLI는 세계 주요 50개 언어를 교육하는 미국 최대 언어 교육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어 교육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DLI에서 몇

년 간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도출된 결과에 따르면, 한국어는 일본어와 함께 미국인들이 배우기 가장 어려운 언어이다. 미국인이 하루 6시간씩 매주 5일 즉, 주당 30시간씩 한국어를 학습할 경우, 온전한 언어 구사에 이르기 위해서 2,769시간(92주, 약 2년)이 소요된다고 한다.

DLI 자료는 한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학습만 수행하는 경우를 가정한 결과이며 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직접 참고하기는 어렵지만, 가령 주당 학습 시간을 4시간으로 가정해 본다면⁴ 온전한 한국어 습득을 위해 대략 14년(692주) 정도가 소요될 수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대략적인 참고치일 뿐, 국적 배경과 학습 시작 연령이 다양한 한국 사회의 이주민들이 한국 내에 거주하면서 학습하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의 학습 기간이 필요할지를 가늠하게 해 주지 못한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실제 한국 사회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4. 성별과 언어 습득

성별과 언어 습득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아동의 모어 발달에 관한 국외 연구들(Nelson, 1973, 1975; Ramer, 1976; Mills, Coffey-Corina, & Neville, 1993)에서는 일반적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언어를 더 나은 언어 능력을 보인다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 국내의 논의에서도 김태경·이필영·장경희(2006)에서는 5~19세 아동 및 청소년의 평균 발화 길이(MLU)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길게 나타남을 보고하였고, 이필영·김정선(2008)에서는 초등학교생의 어휘 수(NDW, TNW)가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서 높게 나타남을 보여 여성이 남성보다 언어 발달에 있어 우세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4 본 연구의 설문에 참여한 이들 중 일부에 대한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이들 대다수가 일주일에 적게는 2시간, 많게는 6시간 정도 한국어를 학습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 내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의 평균 학습 시간을 4시간으로 가정해 보았다.

반면, 성인 유학생의 한국어 어휘 습득 및 어휘 표현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한 김유림(2015)에서는 성별이 이해 어휘, 표현 어휘 및 어휘 표현력 모두와 유의한 단순 상관을 지니지 않았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 연구는 비록 함께 조사한 연령, 한국 거주 기간, 한국어 학습 기간의 영향력을 통계적으로 통제된 상태에서 성별의 영향력을 검증하지 않았으며, 소표본($n=70$)을 대상으로 한 결과라는 점에서 참고에 제약이 있으나, 모어가 아닌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습득 상황, 혹은 미성년이 아닌 성년의 언어 습득 상황에서는 성별의 영향력이 없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이주민근로자, 결혼이주민, 이주민자녀의 한국어 능력 및 어려움 인식에서는 과연 성별에 따른 효과가 확인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Ⅲ. 연구 방법

1. 자료 수집

한국 내에 거주하는 이주민 728명(이주민근로자 246명, 결혼이주민 217명, 이주민자녀 2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역적으로 고른 표집을 위해, 이주민근로자의 경우 전국의 외국인력지원센터 39개소, 결혼이주민의 경우 전국의 다문화가정지원센터 219개소, 이주민자녀의 경우 전국의 다문화중점학교 332개교에 설문 참여 협조를 구하였고 각 기관에서 자의의사로 설문에 참여한 이주민들이 최종 참여자로 표집되었다. 설문 언어는 참여자들의 다양한 한국어 수준을 고려하여 한국어는 물론,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 어, 베트남 어, 캄보디아 어, 우즈베크 어, 인도네시아 어 등 9개 언어로 제작, 사용하였다.⁵

5 외국어 설문지는 각 외국어 모어 화자인 한국어 교육 전공 대학원생들(석사 및 박사 과정)이 한국어 설문지를 번역하여 제작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이주민근로자, 결혼이주민, 이주민자녀 세 집단에 따로 적용된 문항과 공통적으로 제시된 문항으로 구별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제시된 문항 중 ‘성별’, ‘한국 거주 기간’, ‘한국어 학습 기간’, ‘한국어 능력 인식’(세부 4문항), ‘한국어 어려움 인식’(세부 10문항)⁶의 조사 및 측정 결과와 피조사자가 속한 이주민 집단(이주민근로자/결혼이주민/이주민자녀)의 총 6개 변인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주요 6개 변인 및 기타 변인(연령, 모어)⁷의 기술 통계 결과(변인별 결측 제외)는 <표 1>~<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다.⁸

표 1. 성별 분포

	전체	이주민근로자	결혼이주민	이주민자녀
남성	257	149	0	108
여성	454	89	217	148
계	711	238	217	256

‘성별’의 경우, 대체로 행정자치부(2015)의 조사 결과에서와 비슷한 비율로 표집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모집단에서는 이주민근로자는 남성(72.8%)이 여성(27.2%)보다 많고, 결혼이주민은 여성이 절대 다수(88.8%)를 차지하며, 이주민자녀는 남성(51.1%)과 여성(48.9%)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한국어 어려움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세부 10문항은 초급 한국어 교재 및 교육과정에서 확인되는 일반 의사소통 상황들을 참고하여 구안하였다.

7 ‘연령’의 경우 학습 연령+거주 기간에 해당하므로(Stevens, 2006) ‘학습 연령’과는 다르고, 변인으로 포함시킬 경우 ‘한국거주기간’과의 간섭이 예상되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주민자녀만이 결정적 시기(15세 기준) 이전에 학습이 시작된 이들로 판단되므로, ‘이주민집단’ 변인이 학습 연령 변인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모어’의 경우 14개 이상이 확인되어 표집 수에 비해 명명변인의 수준이 지나치게 많으며, 모어 간 표본 수 차이가 너무 커 분석 과정에서 난점이 있어 최종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8 설문지 원본과 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한 그 밖의 정보들은 추후 아산사회복지재단 총서로 출판될 단행본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표 2. 연령, 한국 거주 기간, 한국어 학습 기간 평균(표준편차)

	이주민근로자	결혼이주민	이주민자녀
연령(만)	30.59 (8.23)	30.67 (7.13)	13.64 (1.71)
한국 거주 기간(연)	4.18 (3.57)	5.48 (4.89)	8.25 (5.77)
한국어 학습 기간(연)	1.51 (1.97)	1.93 (1.89)	5.23 (4.88)

‘연령(만)’의 경우, 이주민근로자는 최소 17세에서 최대 68세까지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연령은 30.59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민은 최소 16세에서 최대 53세까지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연령은 30.67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자녀는 최소 8세에서 최대 18세까지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연령은 13.64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거주 기간’의 경우, 이주민근로자는 최소 1개월(0.08년)에서 최대 244개월(20.30년)까지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4.18년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민은 최소 1개월(0.08년)에서 최대 444개월(37.00년)까지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5.48년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자녀는 최소 2개월(0.17년)에서 최대 204개월(17.00년)까지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8.25년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학습 기간’의 경우, 이주민근로자는 최소 0개월에서 최대 144개월(12.00년)까지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1.51년을 학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민은 최소 0개월에서 최대 135개월(11.25년)까지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1.93년을 학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자녀는 최소 0개월에서 최대 204개월(17.00년)까지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5.23년을 학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모어별 분포(중복응답 포함)

	전체	이주민근로자	결혼이주민	이주민자녀
한국어	168	7	13	148
중국어	140	31	56	53
베트남 어	138	47	87	4
타갈로그 어	66	32	29	5
러시아 어	61	21	2	38
캄보디아 어	56	48	7	1
영어	25	10	9	6
일본어	13	1	9	3
인도네시아 어	9	9	0	0
우즈베크 어	9	4	3	2
몽골 어	7	2	2	3
태국어	6	2	4	0
기타	44	34	5	5
계	742	248	226	268

‘모어’의 경우, 이주민근로자는 캄보디아 어, 베트남 어, 타갈로그 어, 중국어 등이 다수로 나타났다. 결혼이주민은 베트남 어, 중국어, 타갈로그 어 등이 다수로 나타났다. 이주민자녀는 한국어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중국어와 러시아 어가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어를 모어로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은 이주민자녀 중 39.5% 정도가 한국에서 태어난 이들로 보인다.⁹

9 ‘연령’-‘한국 거주 기간’=0으로 나타난 이들을 한국에서 태어난 이들로 추정한 결과이다.

표 4. 한국어 능력 인식 평균(표준편차)[5점 리커트]

		이주민근로자	결혼이주민	이주민자녀
평균 (표준편차)	듣기	2.67 (1.22)	2.99 (1.13)	4.14 (1.15)
	말하기	2.52 (1.13)	2.77 (1.17)	4.06 (1.23)
	읽기	2.83 (1.07)	3.06 (1.05)	4.02 (1.19)
	쓰기	2.45 (1.09)	2.66 (1.06)	3.90 (1.29)
	전체	2.63 (0.98)	2.87 (0.98)	4.03 (1.13)

※ 응답 방식: 1=‘매우 부족하다’, 2=‘조금 부족하다’, 3=‘보통이다’, 4=‘조금 잘 한다’, 5=‘매우 잘 한다’

‘한국어 능력 인식’의 경우, 이주민근로자와 결혼이주민은 평균적으로 ‘조금 부족하다’와 ‘보통이다’ 사이의 수준(각각 2.63, 2.87)으로 자신의 능력을 인식하는 반면, 이주민자녀는 ‘조금 잘 한다’를 넘는 수준(4.03)의 능력 인식을 보여, 이주민자녀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능력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기능별로는 이주민근로자, 결혼이주민, 이주민자녀의 세 집단 모두가 ‘쓰기’에서 가장 낮은 수준(각각 2.45, 2.66, 3.90)의 능력 인식을 보였다.

표 5. 한국어 어려움 인식 평균(표준편차)[5점 리커트]

의사소통 유형	어려움		
	이주민 근로자	결혼 이주민	이주민자녀
① 친구에게 부탁이나 요청하기	2.71 (0.98)	2.72 (1.13)	1.65 (1.00)
② 취미나 관심사에 관해 친구와 대화하기	2.71 (0.99)	2.73 (1.08)	1.68 (1.02)
③ 시장, 마트,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 점원과 대화하기	2.71 (0.99)	2.69 (1.03)	1.75 (1.01)
④ 은행이나 관공서(우체국, 주민센터, 출입국사무소 등)에서 업무 처리를 위해 직원과 대화하기	2.82 (1.17)	3.01 (1.22)	2.00 (1.20)
⑤ 진료나 처방을 받기 위해 의사나 약사와 대화하기	2.96 (1.17)	2.98 (1.17)	1.90 (1.17)
⑥ 길을 묻거나 알려주기 위해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기	2.81 (1.07)	2.88 (1.12)	1.93 (1.16)
⑦ 처음 만난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 대화하기	2.83 (1.13)	2.91 (1.11)	1.93 (1.16)
⑧ 전화를 걸거나 받기	2.85 (1.10)	2.87 (1.10)	1.68 (1.04)
⑨ 휴대전화 메시지를 읽거나 쓰기	2.80 (1.11)	2.81 (1.09)	1.70 (1.08)
⑩ 표지판, 간판, 광고를 읽기	2.77 (1.13)	2.80 (1.10)	1.71 (1.03)
전체	2.81 (0.93)	2.80 (0.99)	1.79 (0.97)

※ 응답 방식: 1=‘전혀 어렵지 않다’, 2=‘별로 어렵지 않다’, 3=‘보통이다’, 4=‘조금 어렵다’, 5=‘매우 어렵다’

‘한국어 어려움 인식’의 경우, 전체적으로 이주민근로자와 결혼이주민은 ‘별로 어렵지 않다’와 ‘보통이다’ 사이의 수준(각각 2.81, 2.80)으로 어려움을 인식하는 반면, 이주민자녀는 ‘전혀 어렵지 않다’와 ‘별로 어렵지 않다’ 사이의 수준(1.79)으로 어려움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⁰ 의사소통 유형별로는 세 집단 모두에서 ‘④ 은행이나 관공서에서 업무 처리를 위해 직원과 대화하기’, ‘⑤ 진료나 처방을 받기 위해 의사나 약사와 대화하기’, ‘⑦ 처음 만난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 대화하기’를 상대적으로 더 어렵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도 이주민근로자는 ‘⑧ 전화를 걸거나 받기’를, 결혼이주민과 이주민자녀는 ‘⑥ 길을 묻거나 알려주기 위해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기’를 어렵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자료 분석

자료 분석 시 6개 변인에서 결측이 없었던 461명(이주민근로자 119명, 결혼이주민 137명, 이주민자녀 205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첫 번째 연구문제(어떤 변인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이주민의 한국어 의사소통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해답을 얻기 위해 수집된 6개 변인들 중 ‘한국어 어려움 인식’을 반응변인으로 삼고, 나머지 5개 변인들을 각각 설명변인(한국 거주 기간), 매개변인(한국어 능력 인식), 조절변인(한국어 학습 기간), 공변인(이주민집단, 성별) 등으로 삼아 조건부 과정 분석(conditional process analysis)(Hayes, 2013)을 실시하였다.¹¹ 두 번째 연구문제(이주민의 한국어 의사소통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필요한 학습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앞선 분석 결과로 얻은 최종 경로 모형을 해석하여, 이주민들의 학습, 거

10 10개의 문항에서 제시한 상황이 주로 일상생활에서의 기초 한국어 구사 능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11 Hayes(2013)에서 제안하는 조건부 과정 분석은 모수 검정을 위한 기본 가정의 충족을 요구하는 구조방정식 분석과 달리, 부트스트랩(Bootstrap)을 통해 모수 가정 충족이 어려운 소표본 상황에서도 복잡한 경로 관계를 동시에 검정할 수 있게 해 준다.

주와 관련한 세 가지 가정 상황에서 어려움 해소에 필요한 시간을 수학적으로 산출하였다. 통계적 계산이 필요한 대부분의 경우에 SPSS 22.0을 사용하였고, 특히 조건적 과정 분석을 위해서는 Hayes(2013)에서 제공하는 Process macro를 SPSS에서 구동하여 활용하였다.

각각 4개와 10개의 하위문항을 통해 단일 변인 측정이 이루어진 ‘한국어 능력 인식’과 ‘한국어 어려움 인식’의 경우, 여러 문항의 측정값들을 하나의 단일변인 값으로 요약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하기 위해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주성분분석에서 확인 가능한 고윳값(eigen value)은 심리측정도구의 구인타당도 검토 시 적합한 구인의 개수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로서, 일반적으로 고윳값이 1.0 이상인 주성분(혹은 공통성분)의 개수를 구인의 개수로 사용한다. 확인 결과, ‘한국어 능력 인식’과 ‘한국어 어려움 인식’ 모두 제1주성분의 고윳값만이 1.0 이상이며, 제1주성분만으로 분산의 80% 이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표 7). 이는 이들을 두 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하위 문항들을 요약하여 하나의 구인으로 간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한국어 능력 인식’과 ‘한국어 어려움 인식’의 하위 문항 평균값을 각각의 변인 값으로 사용하였다.

표 6. ‘한국어 능력 인식’ 측정 4문항의 주성분 분석 결과

성분	초기 고윳값		
	전체	분산	누적
1	3.447	86.179	86.179
2	.265	6.663	92.812
3	.171	4.226	97.078
4	.117	2.922	100.000
KMO=.827			

표 7. ‘한국어 어려움 인식’ 측정 10문항의 주성분 분석 결과

성분	초기 고유키포		
	전체	분산	누적
1	8.182	81.283	81.283
2	.359	3.595	84.878
3	.320	3.199	88.077
4	.306	3.061	91.138
5	.231	2.308	93.446
6	.185	1.847	95.293
7	.171	1.709	97.002
8	.116	1.156	98.158
9	.104	1.039	99.197
10	.080	.803	100.000
KMO=.950			

IV. 연구 결과

1. 이주민의 한국어 어려움 설명을 위한 경로 모형

최종 반응변인으로 삼은 ‘한국어 어려움 인식’이 다른 5개 변인들과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아래 <표 8>과 <표 9>에 제시된 상관분석 이외에도 중다회귀분석, 구조방정식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단순한 경로만을 분석할 수 있는 중다회귀분석으로는 본 연구에서 수집한 변인들의 복잡한 관계를 충분히 밝혀내기 어려웠으며, 소표본의 한계로 인해 구조방정식 분석으로도 적합한 모형이 산출되지 않았다.

표 8. 변인 간 Pearson 상관계수

	성별	한국 거주기간	한국어 학습기간	한국어 능력인식
한국거주기간	.050			
한국어학습기간	.015	.664**		
한국어능력인식	.052	.600**	.590**	
한국어어려움인식	.015	-.479**	-.464**	-.688**

*p<.05, **p<.01, *p<.001

표 9. 변인 간 다연(polyserial)상관계수

	한국 거주 기간	한국어 학습 기간	한국어 능력 인식	한국어 어려움 인식
이주민 집단	.250*	.491*	.448*	.446*

*p<.05, **p<.01, *p<.001

이에, 부트스트랩(Bootstrap)을 통해 모수 가정의 충족 여부와 상관 없이 매개변인, 조절변인 등이 개입하는 복잡한 경로 관계를 한꺼번에 검증해 주는 Hayes(2013)의 여러 모형들을 탐색적으로 적용하였다. 그 결과, 8모형(Hayes, 2013: 371-384, 425, 470)이 변인들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자들이 8모형에 입각하여 초기에 설정한 가설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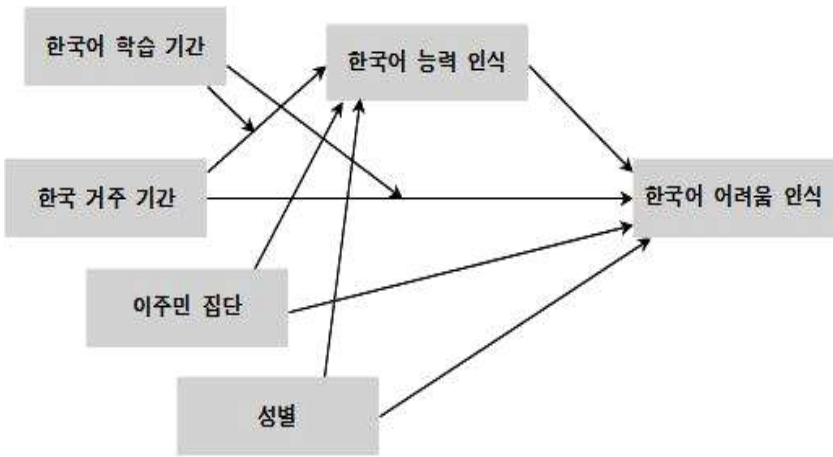


그림 1. 초기 경로 가설

8모형의 분석 틀에 수집한 모든 변인들을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아래 <표 10>에서와 같이 가정된 경로들 중,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로가 $p < .05$ 수준에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경로들은 가변인(dummy variable)¹²으로 처리한 ‘이주민집단(1)’과 ‘성별’ 각각이 ‘한국어 능력 인식’과 ‘한국어 어려움 인식’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총 4가지의 경로들(표 10의 음영 표시)이었다.

12 ‘이주민집단’의 경우 가변인 ‘이주민집단(1)’과 ‘이주민집단(2)’를 사용하여 코딩 후 투입하였다. 가변인의 코딩 방식은 다음과 같다.

가변인	이주민집단(1)	이주민집단(2)
이주민집단		
이주민근로자	0	0
결혼이주민	1	0
이주민자녀	0	1

따라서 ‘이주민집단(1)’은 이주민근로자와 결혼이주민의 차이를, ‘이주민집단(2)’는 이주민근로자와 이주민자녀의 차이를 의미한다.

표 10. 초기 경로 가설(직접경로+간접경로)의 검증 결과

설명변인	반응변인					
	한국어 능력 인식			한국어 어려움 인식		
	계수	SE	p	계수	SE	p
(상수)	1.772	.157	.000	4.422	.156	.000
한국어 능력 인식	-	-	-	-.433	.041	.000
한국 거주 기간	.115	.012	.000	-.049	.011	.000
한국어 학습 기간	.219	.042	.000	-.098	.038	.010
거주*학습 기간	-.013	.003	.000	.008	.003	.003
이주민집단(1)	-.003	.121	.981	-.151	.107	.157
이주민집단(2)	.782	.107	.000	-.615	.100	.000
성별	.102	.094	.277	.069	.083	.406
	$R^2=.539$			$R^2=.562$		
	$F(6, 454)=88.573, p<.001$			$F(7, 453)=82.971, p<.001$		

따라서 ‘성별’과 가변인 ‘이주민집단(1)’을 제외시킨 수정된 모형 가설을 아래의 <그림 2>와 같이 수립하고 다시금 Hayes(2013)의 8모형의 틀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11>에서와 같이 모형에 포함된 모든 경로가 $p<.05$ 수준에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수정된 모형 가설을 최종 경로 모형으로 채택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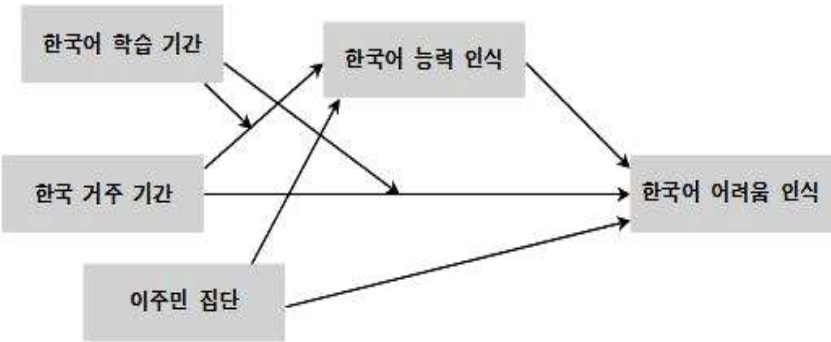


그림 2. 수정된 경로 가설(최종 경로 모형)

표 11. 수정된 경로 가설(직접경로+간접경로)의 검증 결과

설명변인	반응변인					
	한국어 능력 인식			한국어 어려움 인식		
	계수	SE	p	계수	SE	p
(상수)	1.933	.080	.000	4.472	.107	.000
한국어 능력 인식	-	-	-	-.432	.041	.000
한국 거주 기간	.116	.012	.000	-.051	.011	.000
한국어 학습 기간	.225	.041	.000	-.105	.037	.005
거주*학습 기간	-.013	.003	.000	.009	.003	.001
이주민집단(2)	.761	.088	.000	-.546	.084	.000
	$R^2=.538$			$R^2=.560$		
	$F(4, 456)=132.642, p<.001$			$F(5, 455)=.115.737, p<.001$		

위 최종 경로 모형에 따르면, ‘한국 거주 기간’과 ‘이주민집단’은 각각 설명변인과 공변인으로서¹³ ‘한국어 어려움 인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13 설명변인과 공변인의 구별·지정은 설명변인을 하나만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Hayes(2013) 8모형의 Process macro에 맞춰 임의로 이루어진 것일 뿐이므로, 독자나 후속 연구자들의 관심과 초점이 무엇이나에 따라 둘 중 어느 쪽도 설명변인 혹은 공변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그림 2>의 최종 경로 모형에서 알

미치거나 ‘한국어 능력 인식’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공변인으로 삼은 ‘이주민집단’의 경우 <표 10>에서 확인 가능한 바와 같이 이주민근로자와 결혼이주민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반면, 이주민근로자와 이주민자녀의 차이는 초기 모형과 최종 모형 모두에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한국어 학습 기간’은 설명변인인 ‘한국 거주 기간’의 직접적 영향 경로에서 조절 변인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매개 변인을 통한 간접적 영향 경로에서 ‘한국어 능력 인식’과 함께 조절된 매개 변인으로서 작용하기도 함을 알 수 있다.

2. 이주민의 한국어 어려움 해소에 필요한 학습 기간

앞서 얻은 최종 경로 모형에 포함된 다양한 변인들 중, 이주민의 한국어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한국어 교육 종사자들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변인은 ‘한국어 학습 기간’일 것이다. 다시 말해,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 정책 담당자들이나 실제 이주민들을 교육하는 한국어 교육자들이 이주민들이 한국어 의사소통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측면은 본 연구의 최종 모형 속에서는 ‘학습’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최종 모형을 통해 얻은 모형식을 수학적식으로 해석하고, 이주민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보통이다’ 혹은 ‘별로 어렵지 않다’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필요한 학습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산출하였다. 앞선 <표 11>에서 제시된 최종 모형의 계수들을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간략한 표현을 위해 각 변인명을 알파벳 기호로 대체하여 표현하였다.¹⁴

수 있듯이 ‘한국 거주 기간’이 ‘한국어 학습 기간’을 조절 변인으로 갖는다는 점에서 ‘이주민집단’보다 더 복잡한 설명을 가능케 하므로 이를 설명변인으로 지정하였다. 반대로 ‘이주민집단’을 설명변인으로 지정했을 때에는 ‘한국어 학습 기간’의 조절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변인들에 동등하게 관심을 둔 본 연구의 가설에서 본다면 ‘한국 거주 기간’과 ‘이주민집단’ 모두를 설명변인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이다.

14 각 알파벳 기호가 가리키는 변인들은 다음과 같다. *A*: 한국어 능력 인식, *D*: 한국어 어려움 인식, *G*: 이주민집단(2), *L*: 한국어 학습 기간, *R*: 한국 거주 기간

$$(1) A=1.933+0.116R+0.225L-0.013RL+0.761G$$

$$(2) D=4.472-0.432A-0.051R-0.105L+0.009RL-0.546G$$

위 두 방정식에서 (1)은 매개변인인 ‘한국어 능력 인식’을 반응변인으로 하는 간접 경로 모형의 방정식이고, (2)는 최종 반응변인인 ‘한국어 어려움 인식’을 반응변인으로 하는 직접 경로 모형의 방정식에 해당한다. 이상의 두 식은 동시 검정되어 도출된 것이므로 이를 합성하더라도 각 변인의 효과 크기가 왜곡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1)과 (2)를 합성하면 다음 (3)과 같은 식을 도출할 수 있다.

$$(3) D=3.637-0.101R-0.202L+0.015RL-0.875G$$

(3)에서 이주민자녀와 이주민근로자(그리고 결혼이주민)의 차이를 의미하는 가변인 G 에 0을 대입한 결과는 이주민근로자(그리고 결혼이주민)의 한국어 어려움 인식을, 1을 대입한 결과는 이주민자녀의 한국어 어려움 인식을 설명하는 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식은 다시 (4),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 D=3.637-0.101R-0.202L+0.015RL \text{ (이주민근로자, 결혼이주민)}$$

$$(5) D=2.762-0.101R-0.202L+0.015RL \text{ (이주민자녀)}$$

(4)와 (5)의 식은 이주민들의 한국어 어려움 인식(D)을 그들의 한국어 학습 기간(R)과 한국 거주 기간(L)이라는 자연적 변인들만으로 설명해 주는 장점이 있다. 위 두 식이 나타내는 경향성을 해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①이주민들이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채 한국어를 학습만 하는 상황($L=0$), ②한국에 거주하기는 하나 한국어 학습을 위한 시간을 전혀 할애하지 않는 상황($R=0$), ③한국에 거주하며 동 기간 내내 한국어를 꾸준히 학습하는 상황($L=R$)의 총 세 가지 상황을 가정하였다. 각 상황에서 앞서 제시한 (4)와 (5)의 방정식은 다시 아래의 (6)~(8)과 같이 단순화될 수 있다.

(6) $D=3.637-0.101R$ (상황① | 이주민근로자, 결혼이주민)

$D=2.762-0.101R$ (상황① | 이주민자녀)

(7) $D=3.637-0.202R$ (상황② | 이주민근로자 및 결혼이주민)

$D=2.762-0.202R$ (상황② | 이주민자녀)

(8) $D=3.637-0.303R+0.015R^2$ (상황③ | 이주민근로자, 결혼이주민)

$D=2.762-0.303R+0.015R^2$ (상황③ | 이주민자녀)

위 (6)~(8)의 식에서 한국어 어려움 인식(D)이 ‘보통이다’(3)와 ‘별로 어렵지 않다’(2)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한국어 학습 기간(R) 혹은 한국 거주 기간(L)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계산하면 <표 12>와 같다. 실제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의 상황이 거주만 이루어지는 경우(상황②)와 거주 기간 내내 꾸준히 학습이 이루어지는 경우(상황③)의 양 극단 가운데의 어느 지점이라고 볼 때, 성인인 이주민근로자나 결혼이주민들은 한국어 학습에 시간을 할애하는 정도에 따라 최소 1.29년에서 최대 3.15년 사이에 ‘보통이다’ 수준의 어려움에 도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별로 어렵지 않다’ 수준에 도달하기까지는 이주민근로자와 결혼이주민은 최소 6.80년에서 최대 8.10년이, 이주민자녀는 최소 2.94년에서 최대 3.77년이 걸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12. 한국어 의사소통 어려움 해소에 필요한 학습기간

	어려움 수준	학습	거주	학습+거주
이주민근로자, 결혼이주민	보통이다	6.31년	3.15년	1.29년
	별로 어렵지 않다	16.21년	8.10년	6.80년
이주민자녀	보통이다	-	-	-
	별로 어렵지 않다	7.54년	3.77년	2.94년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거주와 학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상황③)을 가정할 경우, 이주민들의 한국어 의사소통 어려움 변화

추이가 단순한 직선 형태가 아닌, U자형 곡선 형태를 보이게 된다는 점이다. 즉, 아래의 <그림 3>에서와 같이 이주민들의 한국어 어려움 인식이 전환점인 10.1년 이전까지는 거주 및 학습 기간의 증가에 따라 점차 해소되다가, 10.1년을 지나면서부터는 점차 다시 높아진다는 것이다.¹⁵ 비록 <그림 3>이 학습 기간과 거주 기간이 동일하다는 극단적 가정에 바탕을 둔 상황에서 도출된 것이기는 하나, 이주민들의 대다수가 거주와 함께 일정 정도의 학습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거주 기간에 비해 학습 기간이 짧다하더라도 학습의 조절 효과는 똑같이 나타날 것이고, 따라서 이들의 어려움 변화 추이는 <그림 3>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게 될 것으로 짐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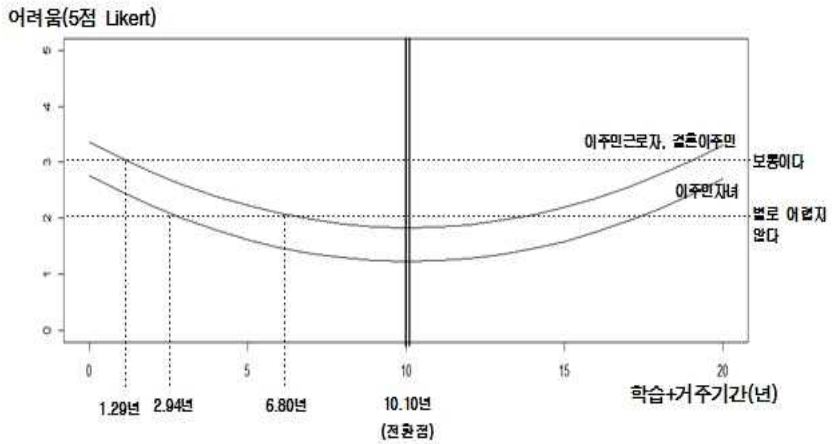


그림 3. 학습+거주 기간에 따른 한국어 어려움 인식 변화 추이

위 그림에서처럼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한국어 어려움 인식이

15 논의의 간결성을 위해 미리 밝히지 않았으나, <표 12>에서 제시된 ‘학습+거주’ 상황에서의 어려움 해소에 필요한 학습 기간은 전환점인 10.1년 이전까지만을 고려하여 산출한 것이다.

다시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게 된 것은 단순히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가정된 2차 방정식이 지닌 단순성에서 비롯한 것일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고려한 변인들 외에도 더 많은 설명변인들을 포함하는 모형을 도출함으로써 3차 이상의 방정식으로 해당 현상을 설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이주민들의 한국어 수준이 일정 기간이 지나 모어 화자 수준에 근접하게 되면서 어려움 인식의 준거점이 제2언어 사용자의 관점이 아니라 모어 사용자가 지니는 준거점으로 달라지고 이에 따라 실제로 어려움이 다시 커지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횡단적으로 수집한 한정된 수의 변인 정보만으로는 전환점 이후의 패턴에 관하여 더 이상 상세히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는 향후 종단적 연구나 추가적인 변인 탐색을 통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첫째, 이주민의 한국 거주 기간이 이들이 한국어 의사소통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며, 그 과정에서 한국어 능력이 매개 변인으로, 한국어 학습 기간이 조절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이고, 이러한 경로에 따른 어려움의 변화 추이는 미성년인 이주민 자녀와 성년인 이주민근로자 및 결혼이주민에게서 달리 나타난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이주민의 한국어 의사소통에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필요한 학습 기간이 미성년인 이주민자녀(‘별로 어렵지 않다’ 기준으로 2.94년~3.77년)보다 성년인 이주민근로자 및 결혼이주민(‘별로 어렵지 않다’ 기준으로 6.80년~8.10년)에게서 더 많이 소요됨을 밝혔다.

거주 기간이 제2언어 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거주 기간이 영어 능력 테스트 결과와 상관을 지닌다는 Johnson과 Newport(1989)의 결과나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 거주 기간과 한국

어 유창성 인식 간에 상관이 있다는 오소정 외(2009)의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이는 영어 습득뿐만 아니라 한국어 습득에서도 거주 기간이 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 준다. 다만, Johnson과 Newport(1989)에서는 $r=.16$ 수준으로 낮게 나타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한국 거주 기간과 한국어 능력 인식의 상관이 $r=.600$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표 8), 이는 한국어 상황에서 조사한 오소정(2009)에서 보고한 것($r=.331$)보다도 높다. 이러한 차이는 Johnson과 Newport(1989)에서처럼 정밀한 능력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오소정 외(2009)에서 ‘한국어 능력 인식’을 변인으로 삼은 데서 기인한 것일 수 있고, 영어와 한국어 상황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이에 관해서는 향후 보다 엄정한 한국어 능력 검사에 바탕을 둔 검사와 이에 기초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습 기간이 한국어 능력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선행 연구나 경험과 상식과도 부합하는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 새롭게 밝힌 사실은, 학습 기간을 거주 기간과 함께 고려하였을 때, 학습 기간은 거주 기간이 한국어 능력 인식이나 어려움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조절 변인으로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또한 이주민 집단별로 한국어 능력 인식의 향상을 매개로 한국어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최소 학습 기간을 구체적으로 도출하였다는 점도 본 연구의 성과이다. 이는 미국인이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기까지 필요한 학습 시간을 제시한 DLI 자료 이외에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학습 기간 정보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유용한 정보로 작용하리라 기대된다.

이주민집단의 경우, 미성년인 이주민자녀가 성년인 이주민근로자나 결혼이주민에 비해 높은 한국어 능력 인식(표 4)과 낮은 한국어 어려움 인식(표 5)을 보이며 한국어 어려움 인식의 해소에 더 짧은 학습 기간이 요구된다는 점은 영어권에서 논의되어 온 ‘결정적 시기 가설’이 한국어 습득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 본 연구에 참여한 이주민 집단 구성원들은 이주민자녀의 경우 대다수(93.7%)가 15세 이전에 한국어 학습을 시작한 반면, 이주민근로자와 결혼이주민들

은 모두 15세 이후 한국어 학습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¹⁶ 15세 이전을 결정적 시기로 간주한 Johnson과 Newport(1989)를 근거로 삼을 때, 이주민자녀는 결정적 시기 내에 한국어 습득이 시작된 반면, 이주민근로자나 결혼이주민은 결정적 시기 이후에 한국어 습득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경로 모형(표 10, 표 11)에 따르면 같은 성년인 이주민근로자와 결혼이주민 간에는 경로 모형에서 ‘한국어 능력 인식’과 ‘한국어 어려움 인식’ 모두에 차이가 없다는 점 또한 한국어 습득에서 결정적 시기 가설이 적용될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주민자녀의 과반수(55.2%)가 자신의 모어를 한국어로 보고한 점에서 과연 이들에게서 한국어 습득이 제2언어 습득으로서 이루어졌느냐는 점에서 해석상의 제약이 존재한다.

끝으로, 성별의 경우 경로 모형(표 10, 표 11)은 물론 단순 상관(표 4, 표 5)에서조차 한국어 능력 인식이나 한국어 어려움 인식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아동의 모어 습득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더 나은 언어발달을 보인다는 일반적 연구 결과(Nelson, 1973, 1975; Ramer, 1976; Mills 외, 1993; 김태경 외, 2006; 이필영·김정선, 2008)와는 상반되는 반면, 성인의 제2언어 습득에서 성별이 어휘 능력과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는 김유림(2015)의 결과를 지지한다. 이 경우 본 연구의 초점상 상세한 논의를 펼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이주민자녀만을 표본으로 삼아 검토해 보았을 때 성별과 한국어 능력 인식 간 단순 상관(Pearson)이 유의하게 나타난다는 점($r=.154, p<.05$)을 고려해 보면¹⁷, 성별의 영향력이 미성년에게서 한정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첫째, 이주

16 시작 연령(age at onset)을 생물학적 연령(chronological age)에서 한국 거주 기간(length of residence)을 뺀 값으로 계산한 결과(cf. Stevens, 2006), 이주민자녀 205명 중 192명이 15세 이전에 한국에 입국한 반면, 이주민근로자와 결혼이주민은 모두 15세 이후에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추정된다.

17 그러나 ‘성별’과 ‘한국어 어려움 인식’ 간 상관은 이주민자녀만으로 한정했을 때에도 유의하지 않았다.

민의 한국어 능력 향상과 한국어 의사소통에서의 어려움 해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실증적으로 찾아내고, 이들 간의 복잡한 관계를 모형화하였다. 그간 이주민 대상 한국어 교육 연구들은 특정 집단, 지역, 모어 등에 한정된 국지적 연구들만이 이루어졌을 뿐, 다양한 이주민집단을 함께 포괄한 연구가 드물었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 거주하는 주요 이주민 집단인 이주민근로자, 결혼이주민, 이주민자녀의 세 부류를 모두 포함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 표집을 통해 다양한 지역, 모어 배경의 이주민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보다 모집단의 실체에 가까운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한국어 어려움 인식을 둘러싼 복잡한 경로 관계를 실증해 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둘째, 이주민의 한국어 의사소통 어려움 해소에 필요한 학습 기간을 실증적으로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한국어 어려움 인식’의 목표점을 ‘별로 어렵지 않다’ 수준으로 삼을 경우, 한국 거주와 시작과 동시에 꾸준히 학습이 이루어지더라도 이주민근로자와 결혼이주민은 6.80년, 이주민자녀는 2.94년의 학습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이는 현재 이주민들에게서 평균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 강도¹⁸를 전제할 때, 한국어 교육 및 학습이 최소 얼마나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로 사용 가능하다. 혹은 이주민을 위해 개발된 신규 한국어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이주민들의 한국어 의사소통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소요된 기간이 효과적인 수준이었는지를 비교, 판단하기 위한 준거점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어교육 담당자나 정책 입안자들이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및 교육 정책을 계획할 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본 논문은 2016.08.07. 투고되었으며, 2016.08.11. 심사가 시작되어 2016.09.04. 심사가 종료되었음.

18 인터뷰 결과 이주민들은 대체로 1주일에 2~6시간 정도 한국어를 학습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학습 시간을 변인으로 설정하여 좀 더 확실히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순희(2009), 「이중언어교육의 필요성과 정책 제언」, 『국어교육학연구』 34, 국어교육학회, 57-115.
- 김경령·이홍식·문금현(2011), 『다문화 가족 국어 사용 환경 기초 조사』, 국립국어원.
- 김영란(2009), 「문식 환경에 따른 한국어 학습자 유형 분류와 연구 과제」, 『국어교육학연구』 34, 국어교육학회, 211-237.
- 김유림(2015),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습득과 어휘 표현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한국어 의미학』 49, 한국어 의미학회, 163-187.
- 김인석(2001), 『멀티미디어 기반 초, 중등 영어교육론』, 학문사.
- 김태경·이필영·장경희(2006), 「연령 및 성별 변인과 MLU의 상관관계 연구」, 『국제어문』 38, 국제어문학회, 107-124.
- 박시균(2013), 『다문화가정 구성원에 대한 두 트랙(two track) 한국어 교육방안』, 집문당.
- 소강춘·장미영·조항범·백두현(200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지역별 한국어 교육실태 및 방문교육 방안 연구』, 국립국어원.
- 오소정·김영태·김영란(2009), 「서울 및 경기지역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특성과 관련변인에 대한 기초 연구」. 『특수교육』 8(2),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137-161.
- 이필영·김정선(2008), 「초등학생의 표현 어휘 능력 연구」, 『청람어문교육』 38, 청람어문교육학회, 219-237.
- 원진숙(2014), 「다문화 배경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의 과제」, 『국어교육』 144, 한국어교육학회, 1-36.
- 전은주(2012), 「다문화 배경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국어교육학연구』 45, 국어교육학회, pp. 79-110.
- 최영환(2009), 「초등학교 국어 교실 현장의 다문화 교육 방향」, 『국어교육학연구』 34, 국어교육학회, 27-55.
- 행정자치부(2015), 『2015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 사회통합지원과.
- 허용·강현화·김선정·이미혜·최은규(2009),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국립국어원.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이형권 역 (2015), 『매개분석·조절분석 및 조절된 매개분석』, 신영사.
- Johnson, J. S., & Newport, E. L. (1989). Critical period effects in second language learning: The influence of maturational state on the acquisition of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Cognitive Psychology*, 21(1), 60–99.
- Lenneberg, E. H. (1967). *Biological Foundations of Language*, New York: Wiley.
- Mills, D. L., Coffey–Corina, S. A., & Neville, H. J. (1993). Language acquisition and cerebral specialization in 20-month-old infants, *Journal of Cognitive Neuroscience*, 5(3), 317–334.
- Nelson, K. (1973). Structure and strategy in learning to talk,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1–135.
- Nelson, K. (1975). The nominal shift in semantic–syntactic development, *Cognitive Psychology*, 7(4), 461–479.
- Oyama, S. (1976). A sensitive period for the acquisition of a nonnative phonological system, *Journal of Psycholinguistic Research*, 5(3), 261–283.
- Oyama, S. (1978). The sensitive period and comprehension of speech, *NABE Journal*, 3(1), 25–40.
- Patkowski, M. S. (1980). The sensitive period for the acquisition of syntax in a second language 1, *Language Learning*, 30(2), 449–468.
- Penfield, W., & Roberts, L. (1959). *Speech and Brain Mechanism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amer, A. L. (1976). Syntactic styles in emerging language, *Journal of Child Language*, 3(1), 49–62.
- Scovel, T. (1969). Foreign accents, language acquisition, and cerebral dominance¹, *Language Learning*, 19(3–4), 245–253.

초록

이주민의 한국어 의사소통 실태 분석

—의사소통 어려움의 요인 및 경로 모형과 어려움 해소에 필요한 학습
기간을 중심으로

민병곤 · 구본관 · 박성석 · 박종관 · 김종철

본 연구는 이주민의 한국어 의사소통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찾고, 어려움 해소에 필요한 학습 기간을 실증적으로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 사회 이주민 중 다수를 차지하는 이주민근로자, 결혼이주민, 이주민자녀 구성원 728명을 전국적으로 표집, 조사하고, 결측이 없는 461명의 자료에 대해 조건부 과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거주 기간이 직·간접적 경로로 한국어 어려움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여기에 한국어 학습 기간이 조절 변인으로, 한국어 능력 인식이 매개 변인으로 작용하며, 어려움 인식의 출발점이 성인과 미성년에게서 달리 나타남을 밝혔다. 또한 한국에 거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매주 4시간 정도 한국어를 학습한다면, 한국어 의사소통이 별로 어렵지 않다고 느끼게 되기까지 성인 이주민은 최소 6.8년, 미성년 이주민은 최소 2.9년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핵심어 한국어 교육, 이주민, 다문화 교육, 한국어 습득, 한국어 학습, 결정적 시기 가설

ABSTRACT

Immigrants' communication in Korean

—The path model for factors affecting the difficulty, and the length of learning period required to overcome the difficulty

**Min Byeonggon • Koo Bonkwan • Park Seongseog •
Park Jong-Kwan • Kim Jong-Cheol**

This study aims to find contributing variables to immigrants' difficulty of communication in Korean, and the learning period required to overcome the difficulty based on the empirical evidence. A comprehensive survey was conducted on 728 people, who were from three immigrant groups (Immigrant Worker, Marriage Immigrant, Immigrant Child) living in Korea. 461 participants' responses, with no missing values, were analyzed using Hayes(2013)'s model 8.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Length of Residence plays a role in immigrants' Self-awareness of Difficulty through the direct path and indirect path. In addition, Self-awareness of Korean Language Ability affected it as a mediator, and Learning Period as a moderator on the direct or indirect path. Moreover, adult immigrants had higher Self-awareness of Difficulty than children upon their arrival. The difference in the degree of difficulty reported by adult and child immigrants was maintained through the learning period. Second, if an adult immigrant continues to learn Korean 4 hours a week from arrival, s/he will overcome the difficulty after 6.8 years, and a child immigrant, under the same condition, needs 2.9 years.

KEY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Immigrants, Multi-cultural Education, Korean Language Acquisition, Critical Period Hypothesis